

여수 마이스산업 신성장 동력 역할 '톡톡'

인프라 구축 효과...1분기 유치 실적 지난해보다 44%↑ 적극 마케팅·인센티브 지원 등 올 방문객 42만명 목표

1300만 관광객이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도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마이스(MICE)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MICE행사 920건, 방문객 41만7000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MICE 유치 실적은 지난해보다 44% 상승한 298건(5만118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6건의 MICE 행사 개최로 4만6338명이 여수를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92건의 행사가 더 열리고 4851명의 MICE 관계자가 추가로 여수를 찾은 것이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 대규모 MICE 개

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5건의 대규모 MICE 행사가 열려 4800여명이 방문했다.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는 엠블호텔에서 '한국농약과학회 국제학술발표회'와 하든베이호텔에서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돼 각각 350명, 270명이 참석했다.

또 대한내과학회 관계자 2500여명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를 찾았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복지학회 관계자 700명도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러 지날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시물레이션학회 학술대회에는 1000명이 왔다.

여수시는 MICE 활성화를 위해 숙박인원 80명 이상, 회의일수 2일 이상 등 행사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행사에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지역 MICE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연2회 운영, 민·관 합동 MICE 유치 상담 및 교류회 개최, 민·관 합동 찾아가는 타겟 마케팅 활동, 2017 KOREA MICE Alliance 컨퍼런스&어워즈 참가, MICE 전문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초 수립한 'MICE 유치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남해안권 MICE 중심 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MICE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30개 회원사가 참여해 있는 '여수 마이스 얼라이언스'의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하고, MICE 관계자 아카데미도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다.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려 올해는 23건의 MICE 행사에 2억3000만원 인센티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우수한 MICE 환경을 알리기 위해 민·관 합동 MICE 초청 팸투어도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한국마이스연례총회, KOREA MICE EXPO 2017과 같은 대표 MICE 행사에 전시부스도 운영하고, MICE 유치 홍보 마케팅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선진 MICE 유치 마케팅활동을 통해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수만의 독자적인 MICE 인프라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신도심서 즐기는 '우리동네 청춘버스킹'

여문문화거리·웅천상가 등 10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여수시는 "원도심의 여수밤바다 남만버스킹과 함께 신도심 지역에서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어쿠스틱, 클래식, 댄스, 마술 등 거리문화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공연장소는 여문 문화의 거리 1·2, 웅천상가, 선소 체육공원, 소호 동동다리 등 5곳이다.

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공연에 참가할 버스커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동네 청춘버스킹 공연에는 235개 팀 580명이 참가해 115회의 공연을 펼쳤다. 관람객은 1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숲속의 전남' 소라면 가사리 생태숲 나무심기 행사

여수시는 "여수YMCA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오전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라면 가사리에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생태숲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생활 속 숲을 가꾸고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여수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가사리

생태교육관, 여수엑스포역, 삼암마을 등 5곳을 선정하고 총 2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동백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교목 및 관목 1만여본을 심는 등 생태숲 조성사업을 전개했다.

여수YMCA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숲 주변 풀베기와 거름주기,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숲관리 사업을 통해 생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경찰,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합동 캠페인 눈길



여수경찰은 "최근 여수도원초등학교 인근에서 일선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이용석 여수경찰서장, 최성수 여수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과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직원 8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무단횡단 및 도로주변

위험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 및 교통안전 알림장 배부 등 캠페인을 벌였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시설개선 및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용석 여수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교통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유기농 쌀 첫 모내기

소라면 현천유기농단지서

여수시가 최근 유기농 벼 재배단지인 소라면 현천유기농단지에서 첫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이번 모내기 행사에는 친환경농업단지 농업인과 유관기관·단체장, 시 공무원, 여수YMCA 생태교육관 유치원생 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승용이앙기를 이용해 0.3ha 면적의 논에 모내기를 한 후 벼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렁이를 방사했다.

현천유기농단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 지역 학생의 급식으로 공급되게 된다.



여수시, 맞춤형 진학컨설팅 2차 참여자 모집

여수시가 지역 학생에게 대학 입시전형에 맞는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진학컨설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역 고등학생 400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개인별 1대1 진학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도 등을 실시한다.

진학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오는 31일까지 진남체육공원 내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mimir@korea.kr)로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일 모집이 완료된 1차 참여자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한다. 2차 참여자에게는 다음달 17일 이후부터 1차 참여자와는 별도 일정으로 4회 이내의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박람회장서 '청소년 해양아카데미'

18일~9월 16일까지

여수시가 청소년들에게 미래 해양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2017 여수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해양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60명씩 총 7기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해양과학, 해양생물,

해양직업, 이순신리더십 등 강의를 듣고 모형보트 제작, 해상케이블카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 엑스포기념관과 아쿠리arium, 빅오쇼 등을 관람하며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는 첫해 전국 29개 고등학교에서 422명, 이듬해인 2016년에는 46개 중·고등학교에서 458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